

# PUBLIC ART

THE MONTHLY PUBLIC ART MAGAZINE  
WWW.ARTINPOST.CO.KR / AUGUST 2015



## FEEL MY BICEP

블록버스터 뮤지엄 신드롬  
blockbuster syndrome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우수콘텐츠 잡지 2015

9 771975 643707  
ISSN 1975-6437

107  
201508



## With Tate Moder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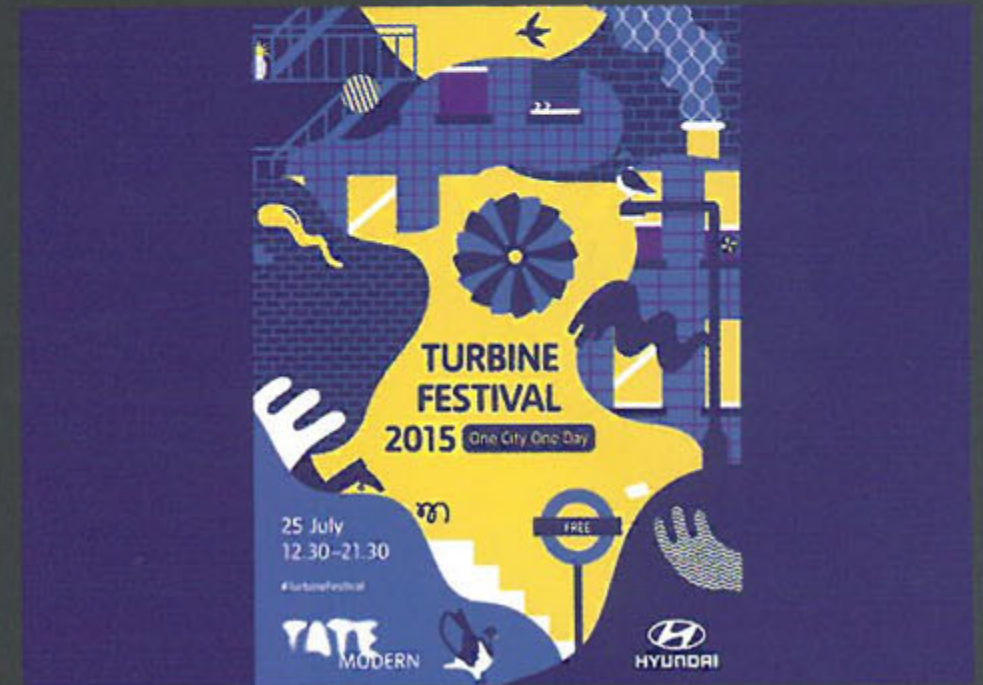
[터바인 페스티벌: one city, one day]

테이트 모던의 터바인 홀, 문화 신도시가 되다. 모두를 위한 문화예술 축제, 터바인 페스티벌

현대미술의 심장 테이트 모던이 여러분의 놀이터가 된다는 사실, 믿어지시나요? 현대자동차는 테이트 모던과 함께 선보일 첫 번째 The Hyundai Commission, 아브라함 크루즈비예가스(Abraham Cruzvillegas)의 10월 전시에 앞서, 7월 25일 터바인 홀(Turbine Hall)을 다양한 문화와 예술로 가득 채웁니다. 문화는 모든 이를 위한 재산이며, 기술과 역사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라 믿는 현대자동차는 테이트 모던과 개최하는 Turbine Festival을 통해 문화의 힘을 보여줍니다. 개인과 공동체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정의하며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문화를 바탕으로, 터바인 홀을 하루 동안 '문화 신도시'로 만들어 여러분을 이 도시의 시민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올라퍼 엘리아슨(Olafur Eliasson)의 거대한 인공태양 설치 작품으로 세계적 명소가 된 터바인 홀. 이곳에서 열리는 Turbine Festival은 '문화의 축제'이자 '새로운 문화도시의 건설'이라는 모토를 바탕으로 모든 사람들이 음악과 퍼포먼스, 설치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즐기도록 합니다. 7월 25일, 낮 12시 30분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페스티벌에는 아티스트들의 다양한 공연은 물론 시 짓기, 공예, 비트박스 등 관람객이 참여하는 여러 프로그램이 마련되고 주변 정원과 헤어 살롱, 바 등도 새롭게 탈바꿈돼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다채로운 분야와 국적의 아티스트들이 참여해 신선한 바람을 불어 넣을 Turbine Festival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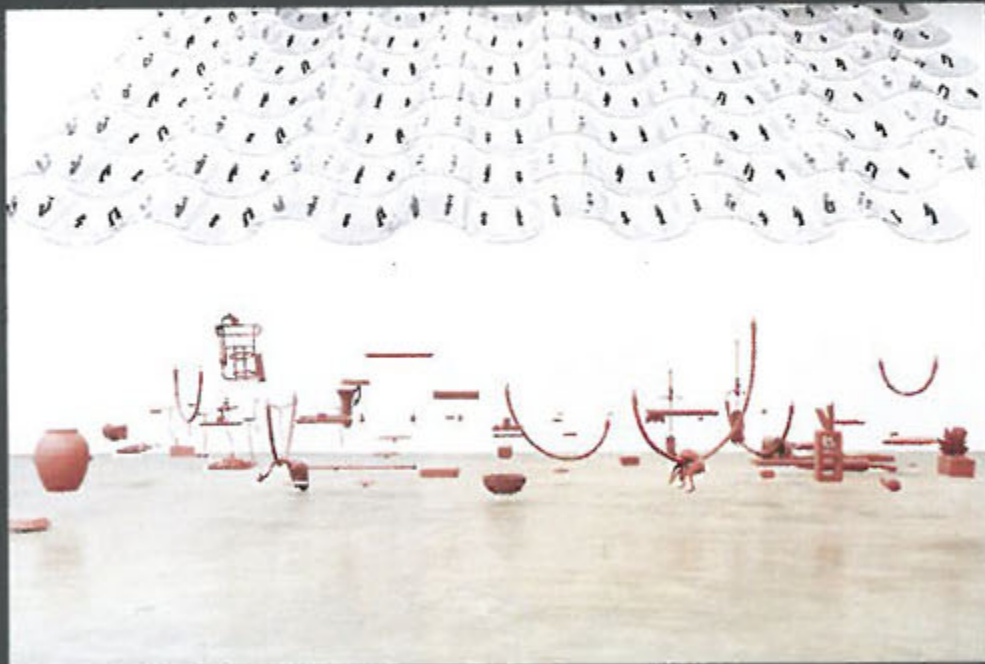
더 자세한 내용은 <http://brand.hyundai.com/ko/art/with-tate-modern/turbine-festival.do>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Brilliant Ideas Episode #3

[마이클 주(Michael Joo)]

독특한 해석으로 작품을 완성하는 수수께끼 미술가



1966년 뉴욕에서 태어나 지금도 뉴욕 레드후크에서 작품을 완성하는 마이클 주는 작가가 되기 전 과학자로 활동했던 특이한 이력을 지녔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는 자신의 작업실을 실험실이라고 부릅니다. 이룸에 걸맞게 그 공간에는 다양한 실험과정에 놓인 오브제들이 곳곳에 비치돼 있는데, 가능성과 잠재성을 열어둔 채 작업하는 태도 덕분에 예상보다 많은 오브제가 버려지기도 하지만 그 중 어떤 것은 훌륭한 작품으로 발전합니다. <Imperfected>(2010)도 그렇게 완성됐습니다. 실험실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건과 오브제들은 어떻게든 서로 영향을 미치며 공존한다고 믿는 작가는 "나의 작업은 가능성과 잠재성에 대한 것이며, 예상치 못한 결과마저 수용하는 것 또한 작업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합니다.

한편 그의 작품에 꾸준히 등장하는 모티프로 자연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자연에서는 완벽하게 균형 잡힌 것으로 보일 수도 있는 것들을 잘라서 다시 균형을 만드는' 마이클 주. 이를 대표하는 작품 <Improved Rack>(2008)은 대칭된 동물의 뿔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http://brand.hyundai.com/ko/art/interview/michael-joo.do>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Brilliant Ideas Episode #4

[잉카 쇼니바레(Yinka Shonibare)]

밝고 경쾌한 시각으로 시대를 꿰뚫는 예술가

1962년에 런던에서 태어나 세 살 되던 해 아버지를 따라 나이지리아 라고스로 이주해 유년시절을 보낸 잉카 쇼니바레는 미술에 큰 관심을 보이며 어린 시절부터 예술가의 꿈을 키웠습니다. 십대 후반 영국으로 돌아와 전문 미술 교육은 받은 그는 대학시절 '아프리카인이나 아프리카스러운 미술을 해보라'는 지도교수의 조언을 듣고 과연 '아프리카다운 것'은 무엇인지 탐구하기 시작합니다. 그 해답을 얻기 위해 헤매던 중 런던 남쪽에 위치한 세계 여러 나라의 물건을 판매하는 브릭스톤 마켓에서 아프리카 전통 원단 상점을 발견했고, 그곳에서 그의 예술의 핵심을 찾습니다. 아프리카 천으로 널리 알려진 옷감의 원산지가 사실 네덜란드이고 그 위에 새겨진 추상적인 패턴은 인도네시아 전통 염색 기술 '바틱'에서 왔다는 몰랐던 사실을 접한 쇼니바레는 가장 '아프리카스러운' 원단이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역사의 결과물이란 것을 알게 됩니다. 잉카 쇼니바레는 이 사실이 아프리카의 정체성을 잘 대변한다고 생각했고 미술로 국가적 정체성과 역사적 모순을 표현하고자 마음먹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http://brand.hyundai.com/ko/art/interview/yinka-shonibare.do>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